

회원사 방송기술인협회장 축사



기정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
MBC 방송기술인협회장

안녕하십니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부회장 기정모입니다.

먼저, 이 시대 방송기술의 현안과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오며 알차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방송기술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 온 전문 월간지 '방송과기술'의 300회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미디어의 영향력은 날로 증가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의식주 만큼이나 없어서는 안 될 의미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변화하는 복잡한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지상파 방송은 국민에게 보편적인 시청 권리를 보장하며, 폭넓은 사랑과 지지 속에 시대의 정신과 흐름을 이끌어왔습니다. 이러한 방송을 존재하게 한 것은 바로 '방송기술'이라는 데에 누구도 이의를 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오체가 균형을 이루어야 움직일 수 있듯이 생각하는 것만으로 움직일 수 없고, 정리한 것만으로 전달될 수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매체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게만 들어주는 마법 같은 '방송과기술'과 함께 방송은 지금껏 발전해 온 것입니다.

그 소중한 방송기술 정보를 모아 정성껏 소개해 온 '방송과기술' 지가 방송기술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의지가 되었는지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입사원 때부터 '방송과기술'을 통해 기술지식뿐 아니라 현안 인식 및 시야를 넓히는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매월 의미 있는 기사를 찾고자 애쓰고 땀을 흘리신 편집부와 기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과기술'과 함께 우리 방송기술인도 앞으로 새로운 방송기술의 역사를 써 갈 것을 기원하며 또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태형

MBN
방송기술인협회장

방송기술인을 희망하던 학창 시절, 유일하게 방송기술의 자료와 전문지식을 길잡이 해주었던 월간지 '방송과기술'이 300호를 맞이했다 하니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아날로그 시절부터 디지털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방송과기술'의 역할은 실로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교과서와 같은 표본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엄청난 방송 생태계 변화 속에 방송기술인들의 역량 향상과 발전을 위해 '방송과기술'이 등대 같은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약 33년간 '방송과기술'의 훌륭한 편집장님과 편집위원, 기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송과기술'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박치규

OBS
방송기술인협회장

회원사 및 연관 산업군과의 기술정보 교류의 장으로써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디지털 뉴딜과 데이터 댐 그리고 비대면 시대 등 다양한 키워드 속에서 현재는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ata Network AI) 시대로 리렌더링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의 엄청난 잠재력은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혁신을 통한 미래에서의 기회를 캐치하고,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디지털의 리더(Leaders)가 될 것인가? 디지털의 래가드(Laggards)가 될 것인가?

기술 리더로 자리 잡기 위한 미래의 꿈을 이를 길라잡이 새로운 시각에서 기회를 만들어 내고 인사이트를 확인하는 ‘방송과기술’이 그 꿈을 이를 기초 토대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 첨단 방송기술의 활약상을 접할 수 있는 매체로써 앞으로도 꾸준히 응원하겠습니다.



최충환

아리랑국제방송
방송기술인협회장

안녕하세요.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여 년 전 방송국에 처음 입사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선배들이 처음으로 건네준 잡지가 ‘방송과기술’이었습니다. 방송에 필요한 장비와 협력사들, 그리고 타 방송사의 동향과 방송기술 트렌드를 접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매개체로 다가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송과기술’은 아날로그 방송을 거쳐 SD, HD, 그리고 UHD까지 숨 가쁘게 달려온 한국 방송의 역사의 한 권에서 묵묵히 방송기술의 전달지로서 방송기술인들의 옆을 지켜왔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방송과기술’을 보는 저의 시각은 조금은 달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나온 장비의 목록이나 ‘방송과기술’의 목차에 나오는 주제의 제목이 아닌 글을 기고하신 분들의 이름이 먼저 저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날이 어려워져가는 방송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방송기술인으로서 자신의 길을 걸어온 우리 방송기술인 분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의를 표하며, ‘방송과기술’이 5G 초연결 사회라고 불리는 이 시대에 앞으로도 방송기술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기술인 분들을 소개하고 연결해 주는 매체로 변창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기

EBS
기술인협회장

‘방송과기술’이 어느덧 300호 발행을 하였습니다!

주말마다 오르던 북한산 백운대에 올해 12월 31일이면, 300회를 오르게 되는데, ‘방송과기술’도 어느덧 300호가 발행된 것을 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리고, 축하의 뜻을 전합니다.

2004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 3년 동안 36회의 발행을 한 경험이 있는 전임 편집장으로서, 지난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매월 10일이 되면, 해당 월의 원고 마감 안내 메일을 보내고, 10일과 20일 사이에 다음 호를 위한 새로운 원고 Item을 발굴하고, 20일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원고를 마감하고, 발행을 준비하는 즐거운 긴장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일한 기억이 납니다.

‘방송과기술’은 방송계에서 가장 친숙한 전문 기술정보 제공처로 발전했고, 300호 발행을 계기로 한층 도약하여 최고의 방송기술 제공원으로 자리 잡기를 희망합니다.

‘방송과기술’이 현재까지도 우리 방송 엔지니어들에게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엔지니어들의 전문성, 이러한 전문성을 공유하고자 매월 편집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편집장, 사무국의 기자 분들, 그리고 각 방송사 편집위원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재와 편집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꾸준하게 노력하여 지속적으로 발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을 전하며, 이런 분들의 노고를 잊지 않고, 늘 감사의 마음으로, ‘방송과기술’을 대하는 우리 방송기술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의 300호 발행이 되기까지는 우리 방송기술인 모두의 결실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한국 방송기술의 성장과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되기를 바라고,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더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우리 방송기술인의 사명입니다.

다시 한번 더 ‘방송과기술’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300호 기념 파트너 축하

요시카이 순지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 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주) 대표이사 요시카이 순지입니다.

월간 '방송과기술'의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방송과기술'은 국내 유일의 방송기술 전문지로서 지난 1988년 창간한 이후 올해로 33년째 방송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양질의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업계의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방송 현장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환경 변화와 촬영 기술, 방송 트렌드 등 유익한 정보를 통해 방송기술에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 새로운 콘텐츠 생태계를 볼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송 현장에서는 신기술을 탑재한 카메라와 발전하는 촬영 기술을 통해 시청자들의 시각을 확장하면서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해왔습니다. 방송 현장에서 촬영 기술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업계 종사자, 관계자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방송과기술'이 방송기술 관련 다양한 트렌드와 새로운 기술을 풀이하고, 미래의 방송기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전문지로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현업에서의 기술 트렌드와 유의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매체로 굳건히 역할을 해주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캐논코리아컨슈머이미징은 카메라 시장의 리더이자 카메라, 시네마 EOS, 렌즈 등 혁신적인 광학 기술력을 기반으로 고품질의 장비와 다채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나가는 브랜드로서, 미래 방송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면서 밑거름이 되어 줄 것을 약속합니다.

월간 '방송과기술'의 300호 발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과 성장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쿠라마 타카시 파나소닉코리아㈜ 대표이사



안녕하세요. 파나소닉코리아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쿠라마 타카시입니다.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HD에서 UHD 그리고 SDR에서 HDR 등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방송기술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의 방송 품질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기술인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일본에서의 파나소닉 근무 당시 수년간 디지털카메라, 방송 장비의 상품 기획을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술의 발달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금까지의 기술의 융합이 방송에서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서 이를 실현해 나가는 것은, 남다른 노력과 수고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가 있어, 앞으로도 그 역할을 담당해 주시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파나소닉은 올림픽 공식 방송 장비 공급 업체로서의 경험과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해 온 기술과 노하우 등을 가지고 한국의 방송기술의 발전에 협력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보다 안심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새로운 개념의 카메라, 스튜디오 장비, 방송 장비 등의 제품을 통해 한국 방송 업계의 발전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300호 발간을 축하드리며 500호, 1000호, 3000호 발간으로 더욱더 발전하시길 기원합니다.

인기환 삼아지브이씨㈜ 대표이사



'방송과기술' 300호 발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한국 방송기술인 여러분들과 연합회 임직원들께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1988년 '방송과기술' 창간호가 발행된 기억이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올해로 51주년을 맞은 저희 삼아와도 호흡을 같이한 '방송과기술'은 항상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와 함께 최신 방송기술 및 정보를 전달해 주는 최고의 방송기술 양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이엔드 언택트 방송기술과 더불어, UHD 방송의 End-to-End 솔루션과 Integrated total Solution을 선도하는 Grass Valley와 함께 저희 삼아는 고객이 요구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에 대응하는 최적의 솔루션을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협력과 상생의 마음으로 코로나로 인한 새로운 일상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 더욱더 소중한지는 요즘, 대한민국 방송을 지켜나가는 방송기술인 여러분의 각별한 노고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카무라 히데아키 소니코리아 프로페셔널 솔루션 사업부 부문 사장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월간 방송과기술'의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발전과 올바른 방송문화 창달을 위해 다양한 방송 정책을 주도해 온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와 방송기술 이론을 비롯해 네트워크, IT, 방송 플랫폼에 대한 국내 유일의 권위 있는 방송기술 전문지인 월간 '방송과기술'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최신 방송기술과 뉴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기술인의 위상 증진과 업계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방송 및 미디어 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로서 국내 방송기술인의 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바지해온 여러분들에게 아낌없는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날 방송 업계는 새롭게 펼쳐질 '뉴노멀' 물결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기술인들이 선제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새로운 도약으로 굳건히 위상을 펼칠 수 있도록 계속해 발전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소니코리아 역시 방송 카메라 및 스튜디오, 디지털 시네마 카메라 등 방송 산업을 위한 제품 개발에 도전을 아끼지 않고, 대한민국 방송기술 미래 발전을 위해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월간 방송과기술'의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前 편집장 & 편집위원 300호 소감

월간 방송과기술은 편집장과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부에서 매달 기획과 섭외를 거쳐 제작됩니다. 방송과기술 100호가 발간된 2004년, 200호가 발간된 2012년 당시 편집장, 편집위원은 300호에 대해 어떤 심정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보았습니다.

방송과기술 100호, 200호 당시 편집장



조성도 15대 방송과기술 편집장

(임기 : 2002년 7월 ~ 2004년 7월)

‘방송과기술’ 300호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0호를 찍었었다는 까먹고 지냈던 옛 추억을 복기해 주네요. 김수태, 당시 연합 회장님이 우면동 골짜기까지 와서 면접(?)을 보셨는데... “웬 보리떡 같은 놈이 편집장을 한다는데, 당체 믿을 수가 있어야지. 추천한 사람의 안목을 믿기로 했지요!” 하루, 일주일, 한 달, ... 리듬감 없는 책은 생명이 없다는 논리 하나로 격월간이던 ‘방송과기술’을 월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꼬박 1년을 설득한 끝에 바꿨죠. DTV 전 송방식 논란 와중에~

CBS 이승호, KBS 오대식 분과장을 비롯하여 정신적 지주 SBS 한 웅 선배와 이론적 지주 MBC 김영석, 그리고 신일수, 원용진, 최승룡, 박진우, 정해봉, 백경보, 임광현, 김정필, 김재순 월간 1호 ‘방송과기술’ 편집위원들... 파노라마 같이 지나가네요. 고맙습니다. 원고 앵벌이를 두 배로 해 주셔서~

일간지라도, 여성지 두께로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심어주던 문혜진 기자, 강동균 팀장, KBS 정경진 기자, 3교를 마치고 소주를 퍼붓던 동진의 연선옥 팀장.. 틀을 잡고 나니 월간이 일상이 되었지만, 과정이 나름 즐거웠었다고 자위해 봅니다. 다들 그랬지요?

당시 EBS 김종무 회장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하지 않았을 편집장이었지만, 누군가 언젠가 했을 거라는, 그래서 더 잘했을 거라는 미안한 마음도 불쑥 밀려옵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는 ‘방송과기술’을 기다리면서 거듭... ‘방송과기술’ 300호를 축하합니다.



신일수 19대 방송과기술 편집장

(임기 : 2012년 1월 ~ 2013년 12월)

안녕하세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편집장을 맡았던 신일수입니다.

제가 편집장을 맡았을 때 200호를 기획했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옛날 기억을 되살리고자 스마트폰의 캘린더 앱을 열고 검색어로 ‘200호’를 적어 보았습니다.

2012년 7월 16일, 나의 일정, ‘200호 특집 축사 확인’이라고 남아 있네요. “아! 맞아, 축사 섭외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랬지?”라고 기억이 새록새록 올라옵니다. ‘방송과기술’ 홈페이지에서 200호 PDF를 보니 국회의원, 방송사 사장님 등 다양한 분들의 인사말이 있군요. 그때 참 어렵게 축사를 받았는데... 한땀 한땀 수를 놓듯이 매월, 책을 편집위원님들과 목동에서 모여 회의하고 만들어갔었는데, 300호라니 정말 각 사 편집위원님들 수고 많으셨고, 우리 연합회가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19로 온택트 사회로 변화되어 가고 종이와 활자가 더욱 사라지는 지금, 아직도 협회원들의 힘으로 매월 책을 발간한다는 것이 기술인의 역량이고, ‘월간 방송과기술’ 300호가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송기술이 발전되어 가도 그 변화의 주축에선 기술인 모두가 건승하시길 기원합니다.

2004년 4월 방송과기술 100호 당시 편집위원



오대식 KBS
화성송신소

매월 편하게 펼쳐보는 ‘방송과기술’.

‘방송과기술’의 300호 발행을 축하드립니다.

책을 손에 들 때마다 목차를 먼저 살펴보며, 이번 호에는 무슨 소식과 정보가 실려있는지 관심을 갖고 봐온 탓에 몇 호 인지는 관심 밖이었는데 벌써 300호가 되었다니...

‘방송과기술’ 편집위원들에게 항상 감사드립니다. 알찬 소식과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애쓰는 편집위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겠지요. 방송기술의 역사와 기록, 정보를 전해 주기 위해 어떤 내용이 좋을지 누구에게 원고를 부탁드려야 할지 편집위원들의 고민의 흔적들이 단어들과 글귀에 그리고 행간에 담겨있음을 느낍니다.

정성을 모아 ‘방송과기술’을 탄생시키는 편집위원들의 수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정해봉 YTN
IT시스템팀 부장

대학 4학년 학교도서관에 앉아 취업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때,

도서관 열람실 한편에 여러 종류의 간행물 책자들이 가지런히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우연히 손에 잡힌 책자가 바로 ‘방송기술인’이었고, 그 시절 건설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일반기업으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때였기에 ‘방송기술인’은 저에게 참으로 흥미로운 책자였습니다. 책자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100% 공감할 수는 없었지만 문득 방송국에 취업해서 일해보고 싶은 작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1988년 회원 친목이라는 순수한 목적으로 ‘방송기술인’이라는 제호로 창간되었던 ‘방송과기술’은 그동안 대대적인 개편과 표지, 디자인, 세션, 카테고리 등 수없이 많은 변화를 거듭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격월간지에서 월간지로 발행되었던 것과 온라인을 통해 기사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300호를 맞아 이제 ‘방송과기술’은 처음 의도했던 회원 친목을 위한 책자가 아니라 명실상부(名實相符) 방송기술인이라면 필수적으로 읽고 있는 지침서이고, 예비 방송기술인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지침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방송과기술’을 통해 방송계 동향과 회원사의 새 소식들을 전달받고, 뉴미디어 시대에 새로운 기술 동향들과 칼럼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0호가 발행되기까지 함께 힘써주신 모든 방송사 협회장과 협회원들, 편집인들에게 아낌없는 축하와 찬사를 보내드리며 수고해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전준하 TBS
라디오기술팀
(임기 2006년 7월
~ 2008년 6월)

‘방송과기술’ 벌써 300호가 되었네요.

축하 인사 먼저 드립니다. 제가 활동했던 기간이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처음 편집위원을 하면서 - 물론 대부분이 처음 해보시겠지만 - 부담이 많이 가는 자리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떻게 2년을 보냈는지 까마득하기만 하네요.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테지만, 매달 있던 편집회의에 참석하며 많은 과제가 떨어졌고 그 과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원고 청탁이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 선후배들은 글 쓰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해서 저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고, 저는 또 집요하게 쫓아다니던 일들이 생각나네요.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애로 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글 재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후배의 원고 요청을 받아 주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분들, 편집위원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제가 있던 시절 편집장을 맡아 주셨던 EBS의 김호식 편집장님을 10년 후 각자 기술인 협회장으로 다시 연합회에서 만나 뵈게 돼서 정말 기분이 묘했습니다. (건강하시죠..?)

우리 인연은 어디에서 다시 이어질지 모르니 소중히 간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방송 플랫폼이 많이 변화하고 기존의 방송을 레거시 미디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눈으로 보이는 콘텐츠에 익숙한 세대에 라디오 방송은 더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라디오방송은 어느 미디어보다 긴 생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라디오만의 장점을 살려낸다면 더욱 발전하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COVID19 사태에 ‘방송과기술’이 많이 힘든 것 알고 있습니다. 광고도 없어지고 제작비도 부족한 상태에서 어렵게 유지해 주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방송 기술인들은 고맙고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우리 ‘방송과기술’은 고생하시는 편집위원들이 있는 한 건승하실 겁니다.

모두들 힘내시고 한걸음 도약하기 위해 움츠리는 시기라고 생각하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송과기술’ 300호 축하드립니다.

2012년 8월 방송과기술 200호 당시 편집위원



박병진 EBS
뉴미디어프로젝트
팀장

안녕하세요. 200호 발간 당시 EBS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던 박병진입니다.

이용학 EBS 편집위원께서 제게 300호 발간계획을 알려주며, 짧은 축하 글을 부탁하셨을 때 ‘왜 나한테?’라며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200호 특집 당시 편집위원이었던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사실확인을 위해 메일함을 뒤져보니, 이진범 기자께서 2012년 7월 2일에 200호 특집 편집회의의 결과를 보내주셨었군요. 메일을 읽어보니 200호 발간을 준비했던 생각이 납니다.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8년이나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축하 글을 쓰기 위해 299호(2020년 11월)를 찬찬히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두 가지 코너가 눈에 띄네요. 제가 편집위원이던 시절부터 지금까지(무려 8년!) ‘C군의 네버엔딩 스토리’ 코너에서 다양한 주제로 방송기술인에게 좋은 글을 전달해주시고 계신 KBS 조인준 차장님의 해박함과 글빨이 부럽습니다.

OTT를 비롯하여 AI, 코로나 시대, 블록체인 및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주제를 아우르며, 방송기술인들에게 통찰을 전해주는 EBS 한영주 박사님의 ‘TREND REPORT’도 좋은 코너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방송환경이 급격하게 바뀌었지만, 좋은 글을 위해 노력하는 편집장님과 편집위원분들, 그리고 이진범 기자님의 활약 속에 우리 ‘방송과기술’은 2020년에도 여전히 좋은 책으로 살아 숨 쉬는 것 같습니다.

편집장님, 편집위원님, 그리고 이진범 기자님 감사합니다. 300호 발간 축하드립니다!



박철배 KBS
기술운영부장

‘방송과기술’ 300호 특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며칠 전 뜬금없이 후배로부터 300호 특집호에 대한 소감을 부탁받았습니다. 선정기준을 물어보니 200호 편집위원으로 활동했다는 이유라고 하더군요. 제가 활동할 당시는 2012년이었으니 벌써 만 8년이 지났습니다.

소감 청탁을 받을 당시엔 아무 생각 없이 ‘알았어~’라고 했지만 막상 오랜만에 글을 쓰려니 괜히 했다는 후회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약속을 지켜야 해서 제가 활동할 당시의 ‘방송과기술’ 내용을 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지금과 비슷하게 200호를 앞둔 우리 편집위원들한테도 200호 축하 인사말을 각 방송사 사장단에게 받아오라는 미션이 떨어졌었습니다.

저는 KBS 담당이라 당시 김인규 사장께 부탁을 드리기 위해 비서실을 통해 연락했지만 보기 좋게 거절당했고, 축하 인사말을 대신할 분을 섭외하기 위해 조금은 생뚱 맞았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당시 전국언론노조 이강택 위원장의 인사말로 제 밥값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활동할 2012년엔 아날로그 방송종료를 앞둔 시점이었고, 2009년 말 개봉된 아바타의 열풍에 힘입어 영화, 방송, 게임 등에 3D 영상에 대한 선호가 이루어졌으며, 2012년 런던올림픽의 UHD 일부종목 제작 등 향후 방송의 트렌드는 초고화질 실감방송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대세였습니다. 따라서 편집회의 때도 이러한 기술들을 소개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지금은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모바일, 소셜네트워크 등의 기술이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AR, VR, XR 등을 통한 ON-Demand 콘텐츠가 범람하는 등 기술의 채택은 매우 복잡한 함수관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방송과기술’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한국방송 기술발전에 공헌하는 잡지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화하는 기술의 동향과 방향성에 대해 좋은 자료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300호 특집을 축하드리며 ‘방송과기술’ 파이팅!!!



이성호 MBC
기술정보사업팀장

‘방송과기술’ 300호를 축하합니다.

제가 MBC 편집위원으로 활동한 지 벌써 8년도 더 넘었다는게 실감이 나질 않네요. 그 당시 회의 참석을 띄엄띄엄하고 원고 납기(?)를 잘 지키지 못해 이진범 기자님을 힘들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맡은 업무로 방송통신네트워크를 활용한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얼핏 방송과 전혀 무관한 분야이지만 우수한 IT 개발능력을 갖춘 방송기술인력들이 지속적으로 도전한 결과 약 3년이 지난 지금은 관련 업계를 선도하는 기술력과 상품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방송기술인들의 뛰어난 역량으로 다양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여 방송 기술인의 영역을 점차 넓혀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방송과기술' 300호를 축하드립니다.



정규석 CBS
시네마국
부장

'방송과기술' 300만큼 사랑해!

2012년 7월, 여느 때처럼 각 방송사 편집위원들과 편집회의를 하던 그날을 생각해봅니다. "다음 달 '방송과기술' 200호 기념 전 편집위원님들의 소감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만 해도 300호 소감을 쓸 거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기술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있지 않은 지금이지만, 여전히 방송기술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건 매달 제 책상에 놓여있는 이 책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토니 스타크(아이언맨)의 딸 모건 스타크는 자신이 셀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로 사랑을 표현한 말이 바로 "3,000만큼 사랑해!"였습니다. '방송과기술'이 300이라는 숫자를 쌓아 올릴 수 있었던 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땀방울들이 모였기 때문이 아닐까 떠올려 봅니다. 앞으로 있을 노력과 결실이 모여 언젠가 300이 3,000이 되는 날을 기대하며, 외쳐봅니다. '방송과기술' I Love You 3,000!



김영호 YTN
기술관리부
부장

'방송과기술' 300호 축하드립니다!

먼저, '방송과기술' 발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또한 현장에서 방송기술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방송과기술'은 방송기술인들의 역사를 담은 우리 모두의 보물입니다. 2012년 편집장님과 각 방송사 편집위원들이 모여 200호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했던 시간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0호를 발간한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1988년 7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20년 12월 300호까지 3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와 함께한 '방송과기술'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 방송기술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과기술'이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기술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라고, 또한 방송기술인으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축하드리고, 모두에게 사랑받는 '방송과기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방송과기술' FOREVER!



한광만 SBS
편집기술팀 차장
(임기 2012년~2013년,
2018년~2019년)

‘방송과기술’이 300호라니!!!

‘방송과기술’이 어느덧 300호를 맞이했군요. 30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 갈 동안 많은 노력 해 주신 선, 후배 편집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과기술’은 많은 방송기술인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 가는 책이지만 그 뒤에서 편집위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용을 더 풍족하게 만들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술인들이 읽기 편하도록 만들어 가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일은 아무래도 원고 수집이 되겠죠.

각 방송사의 편집위원들이 모여 새로운 아이템을 제시하고 그에 맞는 원고를 쓰기 위해 고생을 하지만 생각보다 원고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편집위원일 때도 원고 받기가 어려우면 아쉬울 때가 많았습니다. ‘방송과기술’에는 항상 그 당시의 최신에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방송과기술’이 300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나름의 긴 시간을 돌이켜 보면 흥미로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흘러간 옛 추억의 기술을 돌아볼 수 있기도 하고 당시의 핵심 쟁점들에 대해 논평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기고하신 분들은 훗날 본인의 원고를 발견하게 되면 “어? 내가 이렇게 썼나?” 하며 웃음을 지을 수도 있겠죠.

어쨌 보면 ‘방송과기술’에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역사를 여러 방송기술인들이 모여 한 장 한 장 써 내려가고 있는 중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방송기술인 여러분들~ 원고 잘 써주세요~



이양호 아리랑TV
뉴스부조정실
기술감독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방송기술인들의 기술발전과 지식의 밑바탕이 되어준 ‘방송과기술’이 벌써 300호를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2011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편집위원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보통 아리랑TV의 경우는 2년 동안 편집위원 활동을 하는데 저는 약간 길게 해서 세분의 편집장님과 활동을 같이 했었습니다. 정효성 편집장님, 신일수 편집장님, 최기창 편집장님... 모두 잘 지내시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편집회의 후에 다음 달 원고 분량이 할당되면, ‘누구에게 원고를 부탁하지’ 이런 고민에 항상 빠지게 됩니다. 정중히 거절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반면에, 흔쾌히 수락해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면 안도의 한숨이 나오죠, 편집위원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시는 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무도 수락을 안 해주셔서 제가 직접 원고를 쓴 적도 있었습니다.

편집위원이라는 위치는 우리 방송국을 대표해서 참여하여 타 방송사분들과 교류를 해야 하고, 매달 모여서 ‘방송과기술’ 원고를 채워나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서 잘 말지 않으려고 하는 직책이라 저도 몇 번 거절한 끝에 수락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편집위원 기간 동안 타 방송사분들과 교류도 많

이 하고, 워크숍도 가고, 편집회의 후에 모여서 식사와 술도 하면서 친분을 쌓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방송사는 어떤 장비들을 쓰는지, 생방송이나 녹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등 타 방송사의 분위기 등을 물어보며 견문을 넓힐 수 있어 저에게는 아주 유익한 기간이었고 보람도 되었다고 생각되어, 후배들에게 기회가 된다면 사무국장을 하는 것보다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편집위원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방송기술과 방송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방송과기술'이라는 버팀목이 있어서, 이 변화가 두렵지만은 않게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방송과기술'이 방송기술인들을 이끌어 주는 매개체가 되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한, 현재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번 300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

초등학교 시절 300원

1993년 300원은 꽤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돈이었다. 친구에게 초등학교 앞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사주며 생색낼 수 있는 돈이었고, 동네 구슬치기 우승자에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군자금이며, 오락실에서 스트리트 파이터 2 원코인 엔딩을 3번 볼 수 있는 돈이었다(물론, 동네 초고수를 만나면 5분 만에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다).

하지만 2020년 현재는 300원 가지고는 편의점에서 막대사탕을 3개 밖에 못산다. 3개 사서, 첫째 놈, 둘째 놈 와이프 주면 내 것은 없다. 떡볶이는 이제 한 번 먹으려면 만원을 각오해야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2는 한판에 500원은 내야한다. 왠지 마음이 허한 게 동네 구슬치기 우승자인 내 친구에게 연락해서 주말에 싸우나 갔다가 떡볶이나 먹자고 연락해야겠다.

- MBC 000

숫자 '300'과 나의 이야기

어느덧 입사 300일

300이라는 숫자는 보는 사람에 따라 작은 숫자가 되기도 하고, 큰 숫자가 되기도 합니다.

12월 12일이 입사 300일을 맞은 저에게는 한없이 짧은 시간이었으나, 수십 년간 방송과 기술을 위해 힘써오셨던 여러 편집위원님들에게는 뜻 깊고, 긴 시간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 분야의 엔지니어들에게 있어, 좋은 길잡이가 되어주는 '방송과기술'의 꾸준한 발간을 응원합니다. '방송과기술' 300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김보람 TBS 라디오기술팀